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
에너지학과 교수

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FMD))이란 소·돼지 등과 같이 발굽이 돌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전염병을 말한다.

작년 말부터 발생된 구제역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안전한 대응과 무계획적인 사태전개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답답하기만 하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된 수백만 마리의 동물 사체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너무 반문명적이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침출수 등 추가적인 오염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동물의 사체들을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없이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것은 적절한 처리방법이 아니다.

환경학적으로 볼 때, 2차적인 환경오염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오염행위이고, 그것들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전국적인 오염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구제역사태 또한 4대강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추후 수많은 사후관리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구제역 발생초기에 정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회를 놓쳤다는 정부가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구제역예방에만 집중하다보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안에도 체계적인 사후대책이 제대로 수립된 못한 상황에서 매몰처리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일기유변식

대응으로 인하여 심각한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 2차 오염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와 수계에 미치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악취 등은 단기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동안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매몰지처리는 사전에 토양과 지질조사, 그리고 인근의 지하수와 하천 등의 수계조사를 수반한 이후에 매몰지역의 일정공간을 잘 굴착한 후, 충분한 차폐시설과 폐공을 확보하여 침출수와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냥 마구 버려두기 땅만 파고, 그냥 덮어버린 수십 년전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과 같이 처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수천 곳의 매몰지 대부분이 과학적 사전조사 및 사후대책없이 처리되었기에 앞으로도 매몰지주변의 지하수와 하천 등 수질오염과 토양오염문제가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부터라도 매몰지의 2차오염을 예방

하기 위한 매몰지의 침출수 차집 및 처리 등 사후 보강작업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제는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식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사전에 적절한 관리대책도 없이 임기유변식으로 아무데나 묻어버린다는 것은 국격(國格)을 논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다.

그것은 4대강처럼 적어도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일들을 단기간에 해치우는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다.

어찌 보면 4대강 사업과 구제역사태는 모두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간 중심의 욕심과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채식위주의 식생활개선과 생명존중의 불교적 생활양식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이고, 물질문명주의의 현 삶에 대한 근원적인 전환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社說

이만하면 됐다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참석을 원하지 않으신다. 신행 목적의 방문은 허용한다.”

조계종이 이 같은 불속지침을 발표했다. 이쯤 되면 조계종은 불편한 관계를 청산코자 정부·여당에 확실한 러브콜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 인식의 변화가 감지돼 내려진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에서 “사찰 등 전통문화 가치 발굴과 확산하는 일은 한국의 이미지 신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불교문화를 한껏 추켜세웠다. 장로대통령당지 않던 발언이 있던 자리에서는 전통사찰의 문화콘텐츠화와 관광 상품 개발 등이 결정됐다.

액면대로라면 불교계로서는 삭감된 템플스테이 예산에 대한 보전에 덧붙여 대통령의 임시비스까지 정신적 위자료로 받은 셈이다.

하지만 6일, 자승 스님의 검찰 소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총무원은 진위 파악에 주력했다. 상하 보고체계가 확실한데다 상부의 수사지휘가 엄연히 존재하는 검찰 조직에서 검사 단독의 판단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거물의 재수사를 결정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관행을 깨고 1심 기관에 내린 재기수사 명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일련의 상황에 어떤 정치적 복선이 깔렸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확실한 것은 불교계와 정부, 두 고래의 팽팽한 기싸움에 불자도, 국민도 지쳤다는 사실이다. 이만하면 됐다.

땅만 겨우 봤을 뿐인데

논산 육군훈련소 범당 불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불사금이 모이지 않는단다. 불교계의 전폭적인 관심 속에 삼을 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범당 불사는 이제 겨우 범당이 들어설 땅만 판 단계인데도 걱정부터 해야 할 판이다. “군포교에 불교의 미래가 달렸다”던 사부대중의 그 큰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호소했을까. 이쯤 되면 또 다시 불교계의 뒷심과 역량을 의심해봐야 할 지도 모른다.

자광 스님은 “공사비 105억원 가운데 55억원만이 약정됐다”고 밝혔다.

그 시작은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 불사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장정들에게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 숭고한 포교활동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야 할 금액에서 절반가량이 부족하다. 그나마 55억원도 군종특

별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적지 않게 노력해 겨우 모인 금액이었다. 사찰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 기역원까지 뜻과 마음을 모은 금액이다. 50억원이라는 부족한 액수보다 더 눈앞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은 불자들의 무관심이다. 무엇보다 불교계의 미래를 담보해 진력을 다한 액수가 55억원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내봐야 헛일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 수행과 정진의 땅방울로 수건을 적서보자.

그 시작은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 불사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장정들에게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 숭고한 포교활동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야 할 금액에서 절반가량이 부족하다. 그나마 55억원도 군종특

사부대중 칼럼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나는 늘 기도한다. 절기에 맞춰 기도하고, 특별한 기일을 정해 기도하고, 기도를 권선한다.

기도를 하다보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있다. 기도에 임하는 사람들 그 누군가 간절하지 않고, 기도의 소원 또한 간절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병고로 인한 기도가 가장 간절한 것 같다.

병고는 가장 죽음과 밀접한 일기에 그 도록 간절하지 않을까 싶다.

연제인가 선방에 방부를 들고 화두 일념을 통해 도를 이루겠다며 참선할 때였다.

어느 날부터 죽음이 자꾸만 만만하게 생각되었다. 그러한 생각이 쉽지가 이어졌다. 나는 잠고있던 화두를 잠시 접어두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한없이 사유를 밀착하고 밀착했다. 죽음을 투철하게 고민해 그 막장을 투관해 불 낭으로 내 사유를

거세게 물어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정말 상상에만 머물며 주위를 맴돌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온 몸에 투과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나와 죽음은 일치했다. 그토록 답답했던 죽음이 온몸으로 밀착되어오자 짧은 순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이 목전에 닿았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동안 그토록 당당했던 나의 기세는 한순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등골이 한없이 오싹해오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식은 땀이 흐른 것은 등줄기뿐만이 아니었다. 이마에도 땀이 줄줄 흘렀다. 잠시 잠깐이었으나 그 순간적 체험이후 죽음은 결코 내게 사유적 유희가 아니게 되었다. 그토록 호기 만만하던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후로도 늘 얼마간의 두려움과 항상 함께 했다.

죽음에 대한 용기를 잃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꼭 부정적인 견해만 동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간절적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운 체험은 삶의 곳곳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를 수반해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자에 대한 진정어린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대원력인 구구구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더욱 자신의 일 같이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나는 호기가 찬 젊은 삶을 살아온 탓에 타인의 어려움을 다정히 잘 위로하지 못했다.

병문안 가서 기껏 하는 얘기란 게 “어때요? 의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잘 됐네요. 휴가 온 셈 치고 꼭 쉬세요!” 이 말이 전부였다.

내 월려의 인연 탓일까. 약사도량인 제주 약천사의 주지가 되었다. 약사도량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아픈 이들이 많다. 도량 밖으로 눈을 돌려도 주위를 돌아보니 참으로 병고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나는 아직 오랜 습관으로 인해 그들의 아픔을 다정히 위로하는 기교적 연변은 갖추지 못했다. 비록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면 앞에서 비록 어눌하게 위로할 뿐이지만 오래도록 그들의 고통이 뇌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불보살님의 존상 앞에 무릎 꿇으면 항상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간절할 나의 삶의 주제가 되었다.

아름다운 봄꽃을 노래하다가도 그 쓸쓸한 낙화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어느덧 탄생에서의 날보다 죽음의 날이 더 가까워가 보다. 찬찬히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애절해온다.

죽음의 두려움은 아픈 이웃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웃에 대한 한없는 애정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나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열어주는 것 같다.

죽음에서 삶의 간절함을 찾게 된 일이 언제나 신기할 뿐이다. 그리고 보면 일찍이 성현들도 죽음을 직시하는 명상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관상을 통해 해탈의 길을 망설임 없이 출발하셨나보다.

얼마 전 절진했던 도반을 화장해 떠나 보내야 했다. 도반의 혼이 꽃으로 피어올랐는지 울 들어 봄꽃이 더욱 애절하다. 오래도록 살고 싶다.

이 봄, 다정히 정을 나는 이웃들과 조금이라도 오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그들과 죽음의 공포에서 먼 희망의 삶을 정말 간절하게 엮어가고 싶다.

삶을 간절히 엮어가고파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범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권선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비실천 =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내실곳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227번지 고승복지단(앞) 전화 031)764-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
단장 경천 배상